

 보건복지부	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
배 포 일	2020. 5. 19. / (총 3매)	담당부서	보험정책과
과 장	진 영 주	전 화	044-202-2710
담 당 자	최 은 희		044-202-2704

## 김강립 차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방문(5.19)

- 코로나19 방역에 함께 힘써 준 직원 격려 -

-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(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)은 5월 19일(화) 오후 2시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김용익)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원장 김선민)을 방문하여, 두 기관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점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다.
-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하여 코로나19 대책추진단을 구성하고, 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), 중앙방역대책본부(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)와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해 왔다.
-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설 지원, 인력 파견과 1339 상담업무 지원, 생활치료센터 및 임시생활 시설 설치·총괄 운영 등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다.
- 대구지역 선별진료소 등 대구시 현장에 36명, 특별 검역업무 지원을 위해 인천공항검역소 등에 78명, 생활치료센터 및 임시 생활시설에 67명 등 총 259명의 인력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.

- 특히, 파주NFC 생활치료센터와 안성 우리은행연수원 생활치료 센터에 직원을 파견하여 방역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환자 치료와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 활동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.
  - 코로나19 해외 위험 요인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을 김포시에 설치하고, 시설 총괄 운영지원반을 구성·운영하여 현재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이다.
- 아울러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제천에 있는 인재개발원을 대구 지역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(현재 임시생활시설)로 제공하는 등,
  -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정부를 지원하였고, 해외입국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험자로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.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인천공항검역소 인력 지원과 중국에서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모니터링 실시, 확진환자 이력관리시스템, 음압병실병상 모니터링시스템 등을 구축·운영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.
- 대구의료원 등 대구시 현장에 10명, 특별 검역업무 지원을 위해 인천공항검역소 등에 48명, 병상 및 의료장비 현황 파악, 확진자의 접촉자 관리 등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40명 등 총 119명의 인력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.
- 특히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DUR시스템(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)과 ITS시스템(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)을 활용하여 요양기관 방문자의 감염병 발생국 방문 이력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의료인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.

- 호흡기 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을 지정·운영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.
- 아울러 적극적 검사 및 확진자 관리를 통해 수집된 양질의 임상데이터를 코호트 데이터로 구축하여 전 세계 학계 및 정부기관, 연구자에게 공유하는 등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.
- 확진환자 이력관리시스템, 음압병실병상 모니터링시스템 등을 구축·운영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.
- 특히 ‘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’을 발 빠르게 개발·운영하여 마스크 수급 안정화와에 힘썼고, 약국 등을 통해 전 국민이 5부제에 맞춰 구매할 수 있도록 기여한 바 있다.
- 김강립 차관은 “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헌신, 그리고 전 국민 대상의 건강보험제도 덕분”이라고 전했다.
- 특히 “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생활치료센터, 인천공항 선별진료소, 대구의 의료기관 등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.”라고 하였다.